

잡아함 67. 낙경

날짜: 2월 17th, 2024

출처: <http://www.dhamma.kr/wp/?p=17670>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

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

“항상 수행방편(修行方便)으로 정려사유(靜慮思惟)하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왜냐 하면 비구들아, 수행방편으로 정려사유(靜慮思惟)하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하면 사실 그대로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사실 그대로 관찰하는가?

‘이것은 색이다. 이것은 색의 쌓여 모임이다. 이것은 색의 소멸이다. 수 · 상 · 행도 마찬가지로이며, 이것은 식이다. 이것은 식의 쌓여모임이다. 이것은 식의 소멸이다’라고 관찰하는 것이니라.

어떤 것이 색의 쌓여모임이며, 어떤 것이 수 · 상 · 행 · 식의 쌓여모임인가?

어리석고 법문을 듣지 못한 범부들은 색의 쌓여모임과 색의 소멸과 색에 맛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한다. 사실 그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색을 즐거워하고 색을 찬탄하며, 그 색을 즐거워하고 찬탄하기 때문에 그것을 취(取)한다.

취함[取]을 인연하여 존재¹⁾가 있게 되고, 존재를 인연하여

태어남이 있게 되며, 태어남을 인연하여 늙음 · 죽음과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이 있게 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생기나니, 이것을 색의 쌓여모임과 수 · 상 · 행 · 식의 쌓여모임이라 하느니라.

어떤 것이 색의 소멸이고, 수 · 상 · 행 · 식의 소멸인가?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은 색의 쌓여모임과 색의 소멸과 색에 맞들임과 색의 재앙과 색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안다.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색을 찬탄하지 않으며, 색을 즐거워하지 않고 색을 찬탄하지 않기 때문에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한다.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함이 소멸하고, 취함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 병듦 · 죽음 ·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이 소멸하나니, 이와 같이 모든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느니라.

수 · 상 · 행도 마찬가지이며, 법문을 많이 들은 거룩한 제자들이 식과 식의 쌓여모임과 식의 소멸과 식에 맞들임과 식의 재앙과 식에서 벗어남을 사실 그대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사실 그대로 알기 때문에 그 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식을 찬탄하지 않으며, 식을 즐거워하지 않고 찬탄하지 않기 때문에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한다. 애욕과 즐거움이 소멸하기 때문에 취함이 소멸하고, 취함이 소멸하기 때문에 존재가 소멸하며, 존재가 소멸하기 때문에 태어남이 소멸하고, 태어남이 소멸하기 때문에 늙음 · 병듦 · 죽음 · 근심 · 슬픔 · 번민 ·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이 괴로움뿐인 큰 무더기가 소멸하고, 모두

소멸하게 되나니, 비구들아, 이것을 색의 소멸과 수 · 상 · 행 · 식의 소멸이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비구는 항상 수행방편(修行方便)으로 정려사유(靜慮思惟)하여 안으로 그 마음을 고요히 해야 하느니라.”

부처님께서 이 경을 말씀하시자, 모든 비구들은 듣고 기뻐하며 받들어 행하였다.

본 문서는 dhamma.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